
IT 시대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김정자* · 정복희** · 오명화***

A Study on Parenting Stress of Disabled Children's Fathers in IT era

Jeong-Ja Kim* · Bok-Hee Chong** · Myung-Hwa Oh***

요 약

본 연구는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13세 미만의 장애아들 둔 아버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38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장애아동과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K-PSI-SF)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K-PSI-SF 하위 항목 가운데 부모의 고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까다로운 아동, 그리고 역기능적 상호작용 순이었다. 둘째, 아동의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진단명과 마비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아버지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ental distress of disabled children's fathers.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50 fathers with disabled children who are under 13 years old and undergoing rehabilitation treatment in G city And 38 questionnaires excluding data with inadequate answer were adopte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general peculiarities of disabled children and their fathers, and K-PSI-SF of par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of all, among the parenting stress of disabled children's fathers, parental distress got the highest score and difficult child and dysfunctional interaction are next in sequence in the sub items of K-PSI-SF. Secondly, fathers' stress upon the children's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diagnostic categories and paralysis area. Thirdly, fathers' stress upon fa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ir education level and age.

키 워드

Parenting stress, disabled children, disabled children's father, K-PSI-SF
양육스트레스, 장애아동, 장애아동아버지,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

* 제1저자 : 호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kotpt@hanmail.net)

** 호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idnabi@empal.com)

***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mhoh@dsu.ac.kr)

접수일자 : 2012. 12. 20

심사(수정)일자 : 2013. 01. 18

게재확정일자 : 2013. 02. 20

1. 서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은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라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부담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더욱이 장애아동을 출생한 경우 부모는 큰 충격과 절망을 느끼고 나아가 부모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가족 분열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2].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과 재활치료 및 보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3]. 이처럼 아이의 양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자신의 자녀가 장애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성인으로 성장될 때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장애아동 부모의 건강이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4]. 또한 지나친 가사부담과 양육부담, 정서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던 부부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5].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아동의 양육을 한 개인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장애아의 양육에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과거와는 달리 장애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능력과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실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도 늘어나고 있어 아버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아동 보호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알아봄으로써 장애아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 아버지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알아본다.

셋째, 장애아동 아버지의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가운데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장애아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축약형(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을 사용하였다.

K-PSI-SF는 [6]가 개발한 부모양육 스트레스척도 축약형(PSI-SF)을 [7]이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 이 도구는 부모보고 형식으로 만 1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부모가 경험하는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판별 및 진단용 검사도구로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오는 양육 스트레스 및 자녀들의 행동·정서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임상현장에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개발된 되었다. 검사도구의 하위항목은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3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12항목씩 총 36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모의 고통항목은 부모가 부모역할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것이다. 까다로운 아동항목은 아동이 보이는 일부행동 특성에 중점을 두어 측정한다[7].

점수 부여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76~.91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77이다[8].

3. 연구절차

장애아동과 아버지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과 부모양육 스트레스로 구성된 설문지를 연구에 참여하기로 승낙한 장애아동의 아버지에게 전달하여 직접 작성토록 하였는데 전체 50부를 배부하여 4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38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4명(63.2%), 여자 14명(36.8%)이었고 연령은 4세 이하가 14명(36.8%), 5-7세 11명(28.9%), 8-10세 10명(26.3%), 11세 이상이 3명(7.9%)으로 나타났다. 진단명은 뇌성마비가 25명(65.8%), 발달지연이 6명(15.8%), 기타 7명(18.4%)으로 뇌성마비가 가장 많았다. 마비부위는 편마비 5명(13.2%), 양지마비 12명(31.6%), 사지마비 8명(21.1%), 기타 13명(34.2%)이었고 경기유무는 경기를 하지 않는 아동이 28명(73.7%)으로 경기를 하는 아동보다 더 많았다.

표 1.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sabled children

항 목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24	63.2
	여	14	36.8
연령	4세 이하	14	36.8
	5-7세	11	28.9
	8-10세	10	26.3

	11세 이상	3	7.9
진단명	뇌성마비	25	65.8
	발달지연	6	15.8
	기타	7	18.4
마비 부위	편마비	5	13.2
	양지마비	12	31.6
	사지마비	8	21.1
	기타	13	34.2
경기	유	10	26.3
	무	28	73.7
계		38	100

2.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은 39세 이하가 23명(60.5%), 40이상이 15명(39.5%)이었고, 자녀의 수는 자녀가 1명인 사람이 12명(31.6%), 2명이 11명(28.9%), 3명 이상이 15명(39.5%)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명(2.6%), 고졸 13명(34.2%), 대졸이상 24명(63.2%)로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14명(36.8%), 200-300만원 미만 11명(28.9%), 300-400만원 미만 9명(23.7%), 400만원 이상 4명(10.6%)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thers

항 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
연령	39세 이하	23	60.5
	40세 이상	15	39.5
자녀 수	1명	12	31.6
	2명	11	28.9
	3명 이상	15	39.5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2.6
	고졸	13	34.2
	대졸 이상	24	63.2
월 수입	200만원 미만	14	36.8
	200-300만원 미만	11	28.9
	300-400만원 미만	9	23.7
	400만원 이상	4	10.6
계		38	100

3.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표 III 3과 같다. K-PSI에 의한 아버지의 총 스트레스는 81.44 ± 14.98 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부모의 고통이 28.52 ± 7.78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까다로운 아동으로 27.63 ± 6.19 , 역기능적 상호작용 25.28 ± 5.07 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Table 3. Parenting stress of fathers

구 분	평균 \pm 표준편차
부모의 고통	28.52 ± 7.78
역기능적 상호작용	25.28 ± 5.07
까다로운 아동	27.63 ± 6.19
스트레스 총점	81.44 ± 14.98

4.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표 4와 같다. 성별, 연령, 경기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진단명과 마비 부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부모의 고통과 총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뇌성마비아동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두 영역(총 스트레스 85.40 ± 14.29 , 부모의 고통 30.80 ± 7.48) 모두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 발달 지연의 순이었다. 마비부위에 따라서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지마비(29.37 ± 5.55), 양지마비(26.25 ± 3.98), 편마비(23.00 ± 3.39), 기타(22.76 ± 4.69)의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
Table 4. Parenting stress of fathe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sabled children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총 스트레스
성별	남자	28.04 ± 8.66	24.25 ± 3.88	26.83 ± 6.04	79.12 ± 14.59
	여자	29.35 ± 6.22	27.07 ± 6.4	29.00 ± 6.44	85.42 ± 15.33
t		-.497	-1.694	-1.041	-1.261
연령	4세 이하	29.00 ± 8.25	24.00 ± 4.99	26.57 ± 5.10	79.57 ± 13.96
	5-7세	29.64 ± 9.16	26.00 ± 5.72	27.72 ± 6.67	83.36 ± 17.11
	8-10세	28.18 ± 6.19	26.54 ± 4.86	20.72 ± 7.14	84.45 ± 14.91
	11세 이상	21.00 ± 1.41	23.50 ± 3.53	23.00 ± 4.24	67.50 ± 6.36
F		.704	.661	.923	.848
진단명	뇌성마비	30.80 ± 7.48	25.80 ± 5.58	28.80 ± 6.42	85.40 ± 14.29
	발달지연	22.50 ± 5.95	23.66 ± 4.63	23.66 ± 3.61	69.83 ± 13.04
	기타	25.57 ± 7.23	24.85 ± 3.53	26.85 ± 6.22	77.28 ± 14.33
t		3.893*	.444	1.802	3.309*
마비부위	편마비	25.20 ± 9.83	23.00 ± 3.39	25.00 ± 4.35	73.20 ± 14.13
	양지마비	30.75 ± 9.00	26.25 ± 3.98	29.41 ± 6.38	86.41 ± 15.13
	사지마비	28.75 ± 5.47	29.37 ± 5.55	30.00 ± 7.52	88.12 ± 13.72
	기타	27.61 ± 7.24	22.76 ± 4.69	25.53 ± 5.20	75.92 ± 13.78
F		.774	4.100*	1.589	2.277
경기	유	24.88 ± 5.44	26.22 ± 3.92	28.00 ± 7.00	79.11 ± 14.92
	무	29.46 ± 8.21	24.53 ± 4.88	27.21 ± 5.94	81.21 ± 14.55
t		-1.557	.939	.331	-.375

* p<.05, ** p<.01, ***p<.001

표 5.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
Table 5. Parenting stress of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thers

		부모의 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총 스트레스
연령	39세 이하	23.17±8.13	25.04±4.78	25.56±4.28	78.78±14.30
	40세 이상	29.06±7.46	25.66±5.65	30.08±7.40	85.53±15.56
F		.116	.134	7.642*	1.887
자녀수	1명	30.58±6.72	26.84±4.59	28.30±4.95	85.69±10.85
	2명	27.90±5.98	25.20±6.19	28.00±7.30	81.10±15.97
	3명 이상	27.20±9.61	24.00±4.61	26.80±6.69	78.00±17.28
F		.672	1.102	.220	.917
교육 수준	중졸이하	35.00	38.00	36.00	109.00
	고졸	29.00±6.50	26.46±4.57	27.30±4.75	82.76±9.65
	대졸이상	28.00±8.55	24.12±4.61	27.45±6.84	79.58±16.58
F		.411	5.000*	.936	2.035
월 수입	200만원 미만	30.64±8.39	25.71±6.19	28.78±6.69	85.14±17.62
	200-300만원미만	30.27±6.57	26.09±5.12	27.54±5.46	83.90±12.66
	300-400만원미만	26.11±7.70	23.77±4.11	25.77±5.51	75.66±11.49
	400만원 미만	21.75±5.43	25.00±2.94	28.00±9.05	74.75±17.03
F		1.972	.374	.415	1.105

* p<.05, ** p<.01, ***p<.001

5.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표 5와 같다. 연령과 교육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녀수와 월수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까다로운 아동에서 39세 이하(25.56±4.28) 보다 40세 이상(30.08±7.40)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에서 중졸이하(38.00), 고졸(26.46±4.57), 대졸(24.12±4.61)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IV. 고찰 및 결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문화적 모든

분야의 인간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9]. 이처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어머니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아이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형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22,23]

장애인이나 환자보호자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으나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증가되었다. 하지만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장애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연구로 아버지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K-PSI를 통해 살펴보았다.

K-PSI-SF는 임상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모와 아

동관계 내에서 스트레스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임상가와 연구자들의 요청에 의해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 확장형에서 그 문항을 발췌하여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것을 다시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도구이다[7].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총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나 다른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제외한 양육역할에만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전반적인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로 본 연구에서는 81.44 ± 14.98 이었다. 하지만 PSI를 이용하여 신체장애아동을 둔 어머니 30명의 스트레스를 알아본 [10]의 연구 결과에서는 총 스트레스가 93.0 ± 13.1 로 본 연구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어 장애아동의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선행연구결과[11]와 유사하였다. 반면 신체장애아 어머니의 PSI 하위영역별 스트레스의 순위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부모의 고통, 까다로운 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진단명과 마비부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아동 아버지의 총 스트레스와 하위영역인 부모의 고통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뇌성마비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발달지연이나 기타 보다 매우 심하고 다양하며 또 타입에 따라서도 돌봄의 정도가 다르고 치료 예후도 불투명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0]의 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로 부모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장애아 어머니의 PSI의 총 스트레스는 정서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신체장애의 순으로, 부모의 고통은 정서장애, 신체장애, 정신지체의 순으로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24]

마비부위에 따라서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지마비, 양지마비, 편마비 그리고 기타 순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역기능적 상호작용이란 부모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반대로 아동도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사지마비아동의 경우는 다른 마비타입 보다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인지손상도 심하기 때문에 아동의 활동참여나 역할수행

등 모든 능력이 매우 낮고 따라서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수준도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애정도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2-16]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장애정도와 관련이 있는 진단명과 마비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경기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17]의 연구에서도 뇌성마비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아동의 성별, 연령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18]도 뇌성마비아동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아동의 성별, 연령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어도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까다로운 아동에서 39세 이하 보다 40세 이상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하지만 [18]의 연구에서 뇌성마비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반면 교육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도 본 연구는 40세 이상에서 스트레스가 높았음에 비해 [17-18]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스트레스의 수치가 높다고 하여 그 내용면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선행논문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대처방식도 다양해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스트레스 하위항목인 까다로운 아이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것들로 다른 아동에 비해 더 많이 보거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오는 통증, 불편함, 피로감의 누적이 아버지의 연령 증가와 함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역기능

적 상호작용에서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선행논문 [17-18]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반면 자녀의 수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점수는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15]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높았다[19-20].

월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17, 21]도 가정의 월수입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상관관이 없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 [1, 18]에서는 소득이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이함을 보였고 본 연구에서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수입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면도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장애아동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진단명과 마비부위와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논문이 미비하여 연구결과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비교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연구에서는 많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고 차이점 및 스트레스 해소 방안들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3년도 호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참고 문헌

- [1] Beckman, P.J., Influence of selected child characteristic on stress in families of handicapped infant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Vol. 88, No. 2, pp. 150-156, 1983.
- [2] Hanson, M.J., Hanline M.F., "Paren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and adaptation", Journal Early Intervention, Vol. 14, No. 3, pp. 234-248, 1990.
- [3] 안현수, 오명화, 김정자, "가정방문 작업치료서비스 실태와 만족도 조사", 한국전자통신학회지, 7권, 5호, pp. 1189-1195, 2012.
- [4] 송경선, "문제해결전략을 사용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이 발달지체아동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능력부여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 [5] Abidin, R.R., Genkins, C.L., McGaughey, M.C., The relationship of early family variables to children's subsequent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1, pp. 60-69, 1992.
- [6]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 [7]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검사",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1995.
- [8]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 축약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3권, 3호, pp. 363-377, 2008.
- [9] 김정자, 김진, "고령세대의 환경과 헬스케어 시스템 주택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지, 7권, 4호, pp. 925-930, 2012.
- [10] 최정실, 이미희, " 장애유형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3권, 3호, pp. 43-50, 2005.
- [11] Beckman, P.J.,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effect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Vol. 95, No. 5, pp. 585-595, 1991.
- [12] 강시열, "가정환경과 아동변인에 따른 시각장애 아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3] 강연희, "청각장애 영유아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4] 김영미,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1] Beckman, P.J., Influence of selected child characteristic on stress in families of hand-

- 위논문, 1990.
- [15] 류정혁, “뇌성마비아동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6] 이미자, “뇌성마비아 장애정도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17] 정희정, “뇌성마비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과의 관계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8] 이미자, 정연강, “뇌성마비아의 장애정도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연구, 1권, 1호, pp. 89-103, 1997.
 - [19] 정청자, “장애아 가정의 긴장과 적응에 관한 일 연구: 어머니의 대처자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20] 윤수영, 한경자, “자폐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의학, 4권, 1호, pp. 54-67, 1993.
 - [21] 이화자, 이지원, “뇌성마비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권, 2호, pp. 190-202, 1997.
 - [22] 김동순, 김유숙, 김소희, 장영희, 장미선, 박종, “우리나라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7권, 4호, pp. 937-941, 2012.
 - [23] 안현수, 오명화, 김정자, “아동 가정방문 작업치료서비스 실태와 만족도 조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7권, 5호, pp. 1189-1196, 2012.
 - [24] 지민경, 이미라,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구취실태와 스트레스 및 강박증과의 관계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7권, 5호, pp. 1221-1228, 2012.

저자 소개



김정자(Jeong-Ja Kim)

2004년 8월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원 작업치료전공(이학석사)
 2008년 2월 동신대학교 대학원 물리
 치료학과(이학박사)

2013년 현재 호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작업치료학, 감각통합



정복희(Bok-Hee Chong)

2004년 2월 동신대학교 대학원 물리
 치료학과(이학석사)

2009년 8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
 학박사)

2013년 현재 호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작업치료학, 근골격계 및 신경계 재활



오명화(Myung-Hwa Oh)

1999년 2월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교육학석사)

2005년 2월 삼육대학교 대학원 물리
 치료전공(이학박사)

2013년 현재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작업치료학, 일상생활활동학